



울산현대축구단 마지막 경기 관람

글 홍보팀

10월 23일 일요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울산현대축구단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치러졌다. 우리 회사 임직원은 17년 만에 K리그1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기쁨을 함께하고자 경기장을 찾았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의 즐거움과 선수단을 향한 팬들의 사랑, 우승의 기쁨까지, 축제의 현장이었던 울산 문수경기장에서의 순간을 소개한다.

시즌은 끝나도, 우승의 기쁨은 계속된다

2022년 호랑이해는 그야말로 울산현대축구단의 해였다. 17년 만의 우승은 울산현대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울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는 울산현대의 든든한 캡틴 이청용의 이름이 새겨진 푸른색 유니폼을 입은 팬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울산 문수경기장을 향해 구름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우승의 기쁨과 벅찬 감동이 가득했다. 친구들과 함께 온 10대 팬부터, 20대 커플 팬, 오랜 시간 울산현대의 우승만을 염원해온 중년 팬, 외국인 팬까지 팬덤은 다양했으나, 푸른색 유니폼과 우승의 기쁨은 이들을 한 팀으로 만들었다.

아쉬운 역전패, '처용전사'의 응원엔 진행형

이날 제주유나이티드와 치른 마지막 경기는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피 말리는 승부였다. 울산현대 주장 이청용의 선취골로 울산이 승기를 잡아가는 듯한 초반 경기의 흐름은 제주유나이티드 서진수의 동점 골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무승부로 시즌이 마무리되는 듯하던 후반 추가 시간, 제주유나이티드 구자철의 역전 골로 승부는 기울어졌다.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했지만, 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울산현대축구단의 서포터이자 12번째 선수 '처용전사'들은 팀의 대표 응원가인 '별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등을 한목소리로 부르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선수들을 응원했다.

임직원과 함께한 세 번째 리그 우승 대관식, 기쁨이 배가되다

울산현대축구단의 마지막 여정은 우리 회사 임직원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했다. 우리 회사는 경기 관람을 희망하는 임직원에게 티켓을 배부했고, 울산현대축구단 경기 관람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했다. 울산현대축구단의 연고지에 자리한 부산지사는 주유소 사장님들과 그 가족 총 40여 명을 경기장에 초청해 경기와 우승 대관식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청명한 날씨와 맛있는 간식을 즐기며 가족과 추억을 쌓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오랜 기간 우리 회사와 함께한 우수고객과 오랜 시간 응원해온 팀의 우승 대관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우승의 기쁨은 배가되었다.

이번 우승의 기쁨이 순간이 아닌 K리그 최강팀을 향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울산현대축구단을 향한 우리의 응원은 계속될 것이다.

